



“반갑다 야구야” 광주 챔피언스필드 객채운 관중들 첫 10개 구단 체제로 진행되는 2015 프로야구가 지난 28일 오후 개막했다. 이날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LG 트윈스의 개막경기에서 관중이 노란 막대 풍선을 흔들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개막전에는 2만2000명이 찾아 만원 사례를 이뤘다. KIA는 LG와의 개막 2연전에서 모두 승리했다. > 관련기사 20면 /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한국정치 미래 걸린 ‘광주의 선택’

뉴스 초점

재보선 D-30... 전국 최대 관심지

광주 서구를 선거구 관전 포인트

4·29 국회의원 재보선을 한달 앞둔 가운데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가 정치권의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야권의 텃밭인 광주에서 야권 재편의 향방을 둘러싸고 일대 혈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영택 전 의원을 후보로 내세워 ‘땃발 사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반면 당을 뛰쳐나온 무소속 전정배 전 법무부장관의 인지도도 만만치 않은 등 기세가 상당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정승 후보도 ‘제2의 이정현 바람’을 기대하며 당선을 노리고 있다. 아울러 진보정의당의 부활을 걸고 정의

새정치·천정배, 野 텃밭서 ‘야권 재편’ 향방 둘러싼 일대 혈전

새누리 정승 당선 땀 광주 거점 확보... 진보세력 사활 걸고 총력

당 강은미 후보와 옛 통합진보당 측 인사인 조남일 후보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선거를 정확하게 한 달 앞둔 30일 현재 판세는 전 후보의 저력이 상당하다는 분석과 함께, 조 후보가 탄탄한 새정치연합 조직을 기반으로 전 후보와 박빙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지역에서는 중앙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발전론을 역설하고 있는 새

누리당 정승후보의 기세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워낙 혼전 양상이어서 결과를 선별리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가져올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호남 정치권은 물론 중앙 정치권까지 서구 을 보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경우 조 후보가 패할 경우 즉각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져 문재인 대표 체제가 휘청거릴 수 있는 데다, ‘일당 독점’ 체제였던 광주지역의 정치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 특히 ‘호남발 신당론’이 급물살을 타며 야권재편 본격화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당에서도 이 지역을 최우선 전략 지역으로 판단해 지도부가 수차례 광주를 찾아 “제1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물론, 광주형일자리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반면, 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전 후보는 당선된다면 야권재편의 중심 축으로 화려하게 재기해 ‘호남정치’ 명맥을 승계할 인물로 급부상할 수 있다. 하지만 낙선

할 경우 본인의 정치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를 당선시키면 당의 ‘서진(西進) 행보’가 탄력을 받아 정국의 주도권을 단숨에 가져올 수 있고, 김무성 대표의 ‘대권 잠룡’ 존재감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남의 ‘이정현’, 광주 ‘정승’으로 이어지는 전략 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보선에 ‘전략 투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당도 강은미 후보를 내세워 세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옛 통진당 측도 이번 선거에서 미약한 세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 세력도 사활을 건 선거전을 벌일 전망이다.

선거 막판 변수로는 ‘반(反) 새정치연합’ 전선 구축을 꼽을 수 있다. 최근 정의당이 무소속 전 후보와의 연대에 난색을 표하면서 잠시 주춤 상태지만, 막판 연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대 관심거리다.

/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휴양 수돗물 혁신도시 가보니 > 6면

광신대학교
어? 성경이 읽어지네!
○ 일시 :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 장소 : 광신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구역 과정 개강
문의 : 062) 605-1112 광신대 평생교육원

호남선 KTX 4월 1일 광주 송정역에서 개통식

호남고속철도(KTX 호남선 1단계·용산~송정)가 내달 1일 개통식을 열고 2일부터 정식 운행한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와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달 1일 광주 송정역에서 호남고속철도 개통식을 하고, 다음날인 2일부터 정식 운행한

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 용산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최단 1시간33분(무정차 기준)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2시간37분이었다. 용산~목포 구간은 최단 2시간15분, 용산~여수엑스포 구간은

최단 2시간46분이다.

호남선KTX는 주말 기준으로 상·하행 모두 하루 68회 운행된다. 용산~송정 구간 16회, 용산~목포 구간 32회, 용산~여수엑스포 구간은 20회 등이다. 용산~익산 구간은 18회 운행된다. 용산~광주 송정 구간 운임도 기존 3만8600원에서 4만6800원으로 올랐다.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예술 꿈나무들의 큰 잔치

60주년 호남예술제 전국대회

전주
음악·무용·국악 4월 8일(수)~15일(수)
미술·작문 5월 18일(월)~20일(수)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 ‘호남예술제’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남부대학교, 금호패밀리랜드, 우치공원 등에서 열립니다. 국내 최대·최고 종합예술제전인 제60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부문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일부 종목 성인 참가 가능(한국무용, 국악)
- 경연기간 : 4월 22일(수)~5월 28일(목)
- 참가부문 : 음악·무용·국악·미술·작문
- 접수방법 : 방문신청 : 광주일보사 문화사업국
- 우편신청 :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사 호남예술제 담당자함
- 인터넷신청 : http://art.kjmedia.co.kr (온라인 카드결제 가능)
- 경연일정 : 대회요강 및 홈페이지 참조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후 확정 4월 20일(월) 발표)
- 시상 : · 국회의장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 우수학교상, 우수지도상 수여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 문의 : 062-220-0541
- 주최 : 광주일보사 · (사)아시아문화
-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광주광역시·전라남도·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光州日報社

‘안심대출’ 오늘부터 20조원 추가 공급

4월 3일까지 연장 판매

금융당국이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을 내달 3일까지 20조원 한도로 연장판매한다. 2차 판매에서 20조원 수요를 넘어서면 주태 가격이 낮은 대출부터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관련기사 15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안심전환대출 판매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주택금융공

사와 협의해 29일 발표했다. 2차 공급 한도의 대상과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은 1차 대출과 같다. 20조원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갖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번에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5일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모두 받는다. 신청 접수 후 20조원 한도가 소진되지 않으면 조건이 맞는 대출을 모두 실행하고 신청 금액이 20조원 한도를 넘으면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 김대성기자 bigkim@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미래
The E-Clas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협력 신성자동차(주) 광주 현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광주 현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신성자동차(주) 광주 현시청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